

자유학기제 현장 돌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기 화정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 토론 통해 배운 ‘학교폭력 예방’ 전교생이 함께 실천해요



경기 화정중 학생들이 색종이에 적은 ‘학교폭력 예방 실천 서약’ (왼쪽)과 전교생의 실천 서약을 모아 만든 나무 그림. 화정중 제공

“학교폭력에 어른과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까?” “직접 해를 가하지 않은 방관자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

경기 화정중의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을 파악한 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직접 실천한다.

이 수업을 기획한 조형옥 도덕 교사는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활동과 참여활동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직접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수업은 지난해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사례집’에 소개됐다.

경기 화정중은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작했다. 조 교사는 2014년부터 도덕 교과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토론 및 캠페인 등을 매년 실시해왔고,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이후 이를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에 적용시켰다.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은 총 12차시로 진행됐다.

토론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키워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 그림책 ‘내 탓이 아니야’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갖는다. ‘내 탓이 아니야’는 ‘왕따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으로, 학생들은 이 책을 읽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논제를 적어본다. 모둠별로 토론에 가장 적합한 논제를 선정한 뒤, 모둠별 논제를 칠판에 붙여 그중 토론에 가장 적합한 논제 하나를 선정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의 방관자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를 논제로 정했다면, ‘방관자들은 대체로 폭력 사건을 알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는 피해자를 더욱 아프게 할 수 있다’ ‘폭력사건을 지켜보는 방관자도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다’와 같이 찬성과 반대 입장의 근거를 들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글을 작성한다.

조 교사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 방관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배우게 되고, 방관자를 ‘단순 가담자’ ‘전혀 무관한 방관자’ ‘방어자’ 등으로 구분하며 자신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본다”면서 “이를 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며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후 모둠별로 학교폭력의 원인,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조사하고 정리해본다. 현재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생활하는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살펴보는 시간도 갖는다.

전교생, ‘학교폭력 예방서약’하며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의 유형과 심각성에 대해 배운 이후에는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 앞서 학교폭력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직접 생각해보는 것.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시한 ‘말의 힘’ 실험에선 사진과 같은 유리 그릇이 활용된다. 화정중 제공

먼저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인 ‘언어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말의 힘’ 실험을 실시한다. ‘말의 힘’ 실험이란 두 개의 유리그릇에 각각 밥을 담아 한 쪽 그릇에 대고 ‘고마워’ ‘사랑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한 쪽 그릇에는 ‘짜증나’ ‘관심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한 뒤 양쪽 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한 밥에 곰팡이가 훨씬 많이 피는 결과를 보고 ‘고운 말’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것.

조 교사는 “실험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실험을 직접 해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흥미를 느낀다”면서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며 언어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실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평화를 가져오는 대화법’을 익히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언어폭력을 비롯해 모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서약’을 작성한다. 학교 중앙 현관에 나무 모양을 그린 전지를 붙이고, 중앙 현관을 지나는 전교생 모두 자신만의 실천 서약을 나뭇잎 모양의 색종이에 적어 붙일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실제로 학생들은 ‘나는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117에 신고하겠습니다’ 등 자신만의 실천 서약을 적기도 했다.

이후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의 조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평소 고마웠던 사람에게는 감과 함께 감사편지를, 미안했던 사람에게는 사과와 함께 사과편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뤄져야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조 교사는 “도덕적인 이론과 학습 단계에서 벗어나 이를 현실에 적용시켜보며 학교폭력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교사가 말하는 자유학기제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조형옥 경기 화정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이론 아닌 실천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길러”



말의 힘 실험을 준비하는 경기 화정중 학생들. 화정중 제공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토론과 캠페인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조형옥 경기 화정중 도덕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는 학생들과 매우 밀접한 주제”라면서 “학생들은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길렀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이끈 조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Q.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수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관자’에 속하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 및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다.

물론 학생들은 도덕 교과서를 통해 ‘학교폭력’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 등 학교 폭력의 종류와 같은 전반적인 개념과 이론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만으로 학교 폭력을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학습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했다.

Q.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다보니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 특히 말의 힘 실험, 행복한 학교 만들기, 감사·사과데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됐다. 또한 수업을 하면서 ‘이런 활동까지 하면 더 좋을텐데’ 하는 욕심이 생겨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활동을 골라내기가 다소 어려웠다.

Q.수업의 효과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를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효과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수업을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례가 급격히 줄지는 않겠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고 하거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활동을 통해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펼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이 수업의 장점이다. 학생들은 토론을 하며 가해자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 방관자의 입장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조형옥 경기 화성중 도덕 교사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학교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상황에 맞게 수업 운영방식 바꿔보세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학교폭력’은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간혹 몇몇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교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을 진심으로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수업에 임해야 한다. 학생의 참여는 결국 교사가 학생을 얼마나 믿어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너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니?” “학교가 어떻게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와 같이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주면 학생들은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한다. 교사가 원하는 답을 강요하기 보다는 학생의 생각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식으로 지도하면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사의 역할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 질문할 때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한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면 학생들은 ‘내 답이 틀릴까봐’ 혹은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말하기 위해' 쉽게 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과 같은 주제선택 프로그램에서는 '학교폭력'과 같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이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제언

프로그램의 주제인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 등으로 그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다. 이 수업의 경우 언어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이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학교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이 다르므로 그에 맞게 수업 운영방식을 바꿔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언어폭력보다 신체적 폭력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학교라면 '말의 힘' 실험 대신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 사례를 보여주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것. 만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 상의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고안해 적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일'이라고 여길 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면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이다.